

5명 남았는데…세월호 수색 이달말 마무리

3월부터 6개월간 3명 수습
침몰지점~목포 이동구간
유족들 해역 수색 요구
일반인 신청받아 선체 참관도

25일 찾은 목포신항은 고요했다. 이달 말 세월호 선체수습이 종료되는 목포신항은 철제 펜스에 묶인 노란 리본들만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을 뿐 그 많았던 추모객의 발길도 뚝 끊긴 모습이었다.

펜스 밖에서 지켜본 세월호 작업현장도 조용했다. 선체수습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3년 묶은 뱃들이 내뿜는 진한 악취 속에서 연일 고군분투하던 작업자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된 지난 3월3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17만3000여명이 목포신항을 다녀갔다. 특히 지난 6월 한 달간 1만3200여명이 목포신항을 방문한 뒤 대폭 감소해 7월 3500여명, 8월 2500여명 9월 2100여명, 이번 달은 23일까지 1850여명에 그치는 등 하루 평균 100명이 채 안 되는 방문객들이 목포신항을 찾고 있다.

지난 4월 18일부터 화물칸 등을 선체 수색을 시작한 세월호는 수색 종료 시점이 임박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 5명의 미수습자 가족의 가슴은 시간이 지날수록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 권오복(62)씨는 “선체수색이 종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동생과 조카를 찾지 못해 초조하다”면서 “3층 객실과 화물구역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했는데 발견되지 않아 너무나 힘들다”고 말했다.

권씨는 이어 “이제 마지막 희망은 진도 사고해역에서 반잠수식 선박으로 세월호



“가을 햇살은 이토록 빛나건만…”

를 옮겨왔던 이동구간인 3.2km 해역의 수중수색뿐”이라며 “세월호가 해저면에서 올라온 순간부터 잭킹바지선을 이용해 3.2km 떨어진 반잠수 선박에 거치 되기까지 과정에서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도 앞바다 이동구간인 3.2km를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역시 지난달 7일 열린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반잠수식 선박이 대기했던 곳의 인양 구간에 대한 해저 수색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상태다.

장기욱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선체수습 과장은 “인양구간 수색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논의중이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선체수습본부는 세월호 선체 수습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관 신청을 받고 있다.

참관은 신분증을 지닌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관 당일 목포신항 북문 출입구에 본인의 신분증을 맡긴 뒤 들어가면 된다.

참관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주말과 휴일에만 참관할 수 있다. 선체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까지 진입할 수 있다. 누구나 세월호의 사진은 찍을 수 있지만,

25일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의 모습. 세월호현장수습본부는 지난 4월18일부터 진행한 세월호 선체수색을 이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

세월호 선체수습본부는 미수습자 가족을 고려해 카메라 촬영 자제 등을 부탁했다.

이번 공개 참관은 시민과 4·16가족협의회, 정치권 등의 공개 요구에 따라 참관시 위험요소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참관종료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철호 세월호현장수습본부 과장은 “세월호 참관시 경건한 마음으로 참관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한다”면서 “객실 정밀 수색은 37구역 중 35구역 완료되고 화물칸도 일부 진흙 정리만 남아있는 등 이번 달 말까지 기관구 수색 등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전남교육청 이자율 갈등 해결되나

옛 도교육청 부지 매매대금
이자율 3% 적용 놓고 분쟁
시교육청 이자 높다며 조정신청
도교육감 “최대한 양보”

공공부지 매매대금 이자율을 둘러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매매대금 이자율과 관련한 두 기관 분쟁의 원만한 타협을 요구했다.

두 교육청은 매매대금에 따른 이자율 적용을 둘러싸고 행정부 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분쟁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옛 전남도교육청 건물에 이전할 광주 예술고를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합

의를 유도했다.

장만재 도교육감은 “항상 그동안 광주에 양보하고 희생했는데, 이번에도 가능한한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국 시교육감도 “이자율이 조정되면 매매대금 분할 납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답해 의견 접기 가능성을 보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해 실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결과를 분쟁위에 통보해 오는 12월께로 예상되는 조정 결과를 앞당길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 31일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를 346억원에 이자율 3%, 5년간 분납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전남도교육청과 체결했다.

하지만 이자율 3% 적용이 현행 법령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교육청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매매대금 346억원의 3% 이자율에 따른 5년간 이자는 14억여원에 달한다.

반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의 시중금리는 1.41%에 불과해 절반에 못 미친다. 광주시교육청은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에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8
해질녘 17:45

달돋이 12:09
달지름 22:32

쾌청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가끔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9/21	보성	맑음	5/20
목포	구름많음	10/19	순천	맑음	9/21
여수	맑음	13/20	영광	구름많음	6/20
나주	맑음	6/21	진도	구름많음	8/20
완도	맑음	9/21	진주	맑음	8/20
구례	맑음	5/21	군산	맑음	8/19
강진	맑음	7/22	남원	맑음	5/20
해남	맑음	5/21	흑산도	구름많음	13/17
장성	맑음	5/2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39 23:27	05:29 18:12
여수	05:51 18:56	12:35 --:--

◇주간 날씨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11/1(수)	2(목)
11/22	10/23	10/17	5/16	5/18	7/19	9/19

◇생활지수

	보통
	보통
	보통

‘이영학 사건’ 초등대응 부실 경찰 9명 징계

딸 다시 영장 신청…이영학 계부 숨진채 발견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피해 여중생이 실종됐을 당시 담당 경찰이 허위보고를 하는 등 경찰 초등대응과 지휘·보고체계 전반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검찰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 조사한 결과 이같은 부실을 발견, 사건 관계자 9명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조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결과, 신고를 받은 중랑서 망우지구대 경찰관은 신고자인 A양 어머니를 상대로 A양 행적 등을 조사하지 않았고, 지구대에서 A양 어머니가 이영학 딸과 통화하는 것도 귀담아듣지 않아 핵심 단서 확인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에서는 여중생이 실종된 만큼 여청수사팀도 즉

시 현장에 출동해 지구대와 함께 수색하라는 ‘코드1’ 지령을 내렸지만, 여청수사팀 소속 경위와 순경은 “출동하겠다”는 허위보고 후 사무실에 대기했다.

또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중랑서 정문갑사관은 실종아동 신고 접수 후 현장 경찰관에게 수색 장소를 배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임무를 부여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범죄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수사팀장 보고를 받고도 서장에게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에 대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또 며느리 성복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영학의 계부 A(60)씨는 자택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 적용

내년 하반기…19만명 혜택

내년 하반기부터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

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취약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선물과 함께하는 당노콘서트

나의 인생 첫 당노학교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 2시~6시 태영21병원(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주최 · 당노와건강 환우회

강사 · 가슴뛰는내과 유종현원장 | 상무역사거리 서광주로 방항
보라안과병원 문귀형원장 | 상무지구 롯데마트 건너편
광주21세기병원 오선종원장 | 수완지구 관절척추병원
인하루치과 이광훈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21병원 양태영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삼성서울병원 김재현교수 | 현 당노병학회 총무이사
내분비내과

공연 · 클래식 콘서트 퀸즈퀸텟

예약 · 010-5155-0075 문자로 성함을 남겨주세요. 예약필수

태영21병원 (062)362-0075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